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최양림*, 하규수**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Yang-Lim Choi*, Kyu-Soo Ha**

요 약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다양한 미래 계획들을 준비한다. 급속한 산업패턴의 변화로 직장인들의 근무기간은 점차 줄어들어는 반면에 은퇴이후의 생존기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의 대안의 하나로 창업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요인, 심리적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경제적 노후 준비와 퇴직후 생활 전망 등과 같은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요인에는 위험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가치를 설명하는 창업가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적 특성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인식, 창업에 대한 인식,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340부를 회수하여 결측값이 있는 26부를 제외하고 314부를 사용하여 SPSS Win 18.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요인으로 퇴직후 생활전망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요인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등과 같은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창업의도, 개인요인, 심리요인, 환경요인, 직업가치

Abstract Most of the office-workers are worrying about their future and try to make diverse future plan. Fast shifting industry pattern make office-workers retire early and their remain life time are getting longer and many of them try to consider some kind of new start-up. In this articl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were discussed such as individu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Individual factors were economic situations and future life expectation were analyzed. Psychological factors were composed of risk taking tendency, self efficiency, career value, and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Environmental factors were composed of recognition on social-economic risks and recognition on negative mind on start-up, and employment instability. 340 sampl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26 samples were exclud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18.0 Ver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mong individual factors life-expectation after retirement was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psychological factors risk taking factor has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 recognition on start-up has nega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tudies divers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were necessary to change negative social atmospheres on start-up.

Key Words : Start-up inten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ividu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job value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수명 연장 등으로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0월 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0월 24일

그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를, 2026년에는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20.8%가 되는 초고령사회 도래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총인구중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인 배화연수(倍化年數) 즉 고령화 비율이 배가되는 연수가 미국의 경우 71년, 일본의 경우 24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8년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7].

특히 총인구중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인 배화연수(倍化年數) 즉 고령화 비율이 배가되는 연수가 미국의 경우 71년, 일본의 경우 24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8년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7].

은퇴 세대인 50세 이후 세대는 소득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노후대책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하여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인구(25세~49세)의 지속적인 감소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09.11.18)에 의하면 핵심 노동인구가 2015년에는 1,896만명, 2021년에는 1,784만명, 2025년에는 1,689만명으로 매 5년 마다 100만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업이 정년 계승(세대간 상생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채된 고용환경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창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시니어창업육성정책은 시장실패를 줄이고 준비된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기반 확충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모델 개발과 보급 방안으로 희망 창업유형에 따라 경력 활용형, 취미연계형, 사회봉사형으로 세분화하여 2010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200개 업종을 개발할 예정이다[4].

은퇴자 창업의 사회적 역할과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은퇴자 창업관련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니어 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용어로 시니어 창업가의 정의와 시니어 창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2][43][48].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human capital)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창업의도와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독특성은 은퇴자의 개인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은퇴예상연령, 은퇴후 대책 여부, 은퇴후 경제적 준비 정도, 은퇴후 창업의사 결정 여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계획 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징으로 정의되는[2][37]직업가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졌다.

2. 이론적 배경

2.1 은퇴자 창업

전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조기퇴직의 사회 현상은 청년 실업과 함께 중요한 정책 어젠다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인구의 20.8%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8].

이러한 고령화 사회 진척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우려하여 은퇴자들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창업연구에서 은퇴자 창업 또는 시니어 창업가(Senior Entrepreneur)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47].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시니어 창업의 개념 정의와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다[1].

Baucus and Human[20]은 시니어 창업가를 ‘제2의 경력 창업가(second career entrepreneur)’로 정의하고 50세 이상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특정 연령의 개인으로 시니어 창업가를 정의하고 호주의 통계국에서는 50세 이상을 출발점으로 퇴직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성창수·김진

수, 2011)[4].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시니어 창업의 범위와 수준 및 정의에 대한 일치된 합의는 없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시니어 창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시니어의 경험, 네트워크, 재무적 자원과 같은 개인의 창업보유 역량이 청년 창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시니어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연령과 사회·문화·정책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4]. Blanchflower et al.[23]의 연구에서 자영업의 종사 비중은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후 심리적인 요인 즉 은퇴시기의 연령에 있는 시니어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48]은 시니어 창업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인적자본과 재산, 개인능력, 교육수준 등을 들었다. 사회적요인은 사회적 허용지수, R&D 환경, 기업의 세율, 그리고 개인 소득과 인적 자본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자녀에 대한 책임 등이 시니어 창업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 창업을 ‘직장을 그만 두고 본인 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 하여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 창업가 특성요인

2.2.1 개인적 요인

창업활동을 설명하려는 개인특성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왜 창업자가 되려는가와 관련해 중요한 창업 설명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34].

창업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3]. 연령에 대해서는 창업의도와외의 관계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ydans[39]는 은퇴자와 같은 고연령층은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은퇴 후 창업의도는 젊은 층에 비해 약할 것이라고 본 반면, Leana and Feldman[33]은 자영업 선택은 고연령층이 근로시장에서 차별이 보다 현저하기 때문에 창업할 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창업의사결정의 재무적 자원과 제약요인으로서 소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3]. 이들 연구에 의

하면 소득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2.2.2 심리적 요인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주로 심리학적 접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4]. 심리학적 접근 연구들의 관점은 창업가를 기업을 창업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환경적 불확실성에 대한 혁신적 대응을 시도하는 창업가의 역할과 창업가와 비창업가, 창업가와 대기업 관리자, 성공한 창업가와 실패한 창업가를 구분하는 개인의 인성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규명하는 측면의 연구들이다[24].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요인 중 위험감수성, 자율성, 적극성, 성취욕구 등의 창업가적 특성은 창업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창업의사결정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많은 실증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다[21][3][6][42].

최근에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 창의성[17], 자율성과 진취성[4], 자기효능감(self-efficacy)[3][6] 등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 중 위험 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 가치를 설명하고 이를 창업가 특성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위험감수성향(risk taking)은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19][38]. 위험감수성향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16].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창업가는 경쟁자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도하고자 한다[44].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특정한 과업의 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6]. Fishbein and Aizen 모델이나 Shapero의 모델에서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행동통제력이나 지각된 타당성의 선행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경향의 개인차이가 아니라, 과업의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므로 창업의지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3].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 또는 직업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직업가치 요인도 더욱 구

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규명되고 있다[36]. 국내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직업가치에 관한 기술적인 분석에 그치거나, 연구대상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를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2.2.3 환경적 요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가 또는 예비 창업가의 환경적 요인은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 환경과 창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40].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성별, 창업가 부모, 창업경험, 가족 상황 등이 연구되어 왔다.

Martin[37]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사회적 단절, 심리·육체적 성향,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가족 요인, 사건 예측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Greerberger and Sexton[29]은 Martin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설명하였다.

Cuervo[24]는 창업 환경요인을 경제적 환경요인과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거시경제적 환경, 산업 특성, 재무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법·제도적 시스템, 교육·과학기술 시스템, 문화와 가치로 구분하였다. 사업실패 요인과 사업실패에 관한 인식을 창업환경요인의 하나로 보고 창업의욕이나 사업의욕을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하규수 2009; 하규수·박배진·여영은 2009; 하규수·한정화[12][15][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퇴한 직장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위기, 사회의 부정적 창업의식, 고용불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2.3 창업의도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지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5].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46], 계획적이고 의도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30]. 창 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31],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다. 의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Fishbein and Ajzen, 1975)[27]. 따라서 창업의지는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윤방섭, 20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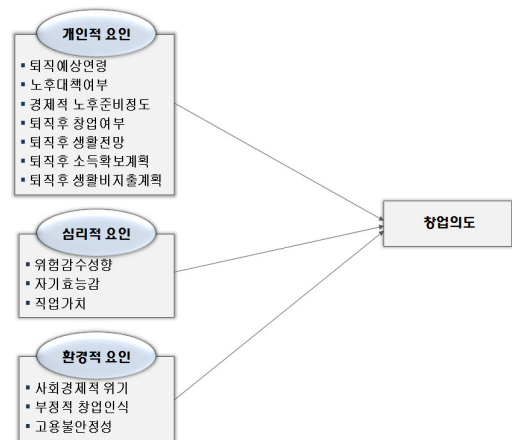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창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주제로 등장하고 있다[3].

창업의도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 심리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 두었으나 점차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대되어 창업교육이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9].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Figure 1과 같은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은퇴자 개인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창업활동을 설명하려는 개인 특성 즉 개인적 요인 중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관하여 Gartner[28]는 직무만족, 이전직무경험, 부모의 창업자 여부, 연령 그리고 교육

등이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하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창업자의 인적자본적 특성과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과 창업전통, 소득 등이다[3].

이러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은퇴자의 개인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은퇴예상연령, 은퇴후 대책 여부, 은퇴후 경제적 준비 정도, 은퇴후 창업의사 결정 여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계획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적 요인(퇴직예상연령, 노후대책여부,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퇴직후 창업여부, 퇴직후생활전망, 퇴직후 소득확보계획, 퇴직후 생활비 지출계획)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 퇴직예상연령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노후대책여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 경제적 노후준비정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 퇴직후 생활전망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 퇴직후 소득확보계획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 퇴직후 생활비 지출계획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심리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접근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6][4].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위험 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 가치를 심리적 특성으로 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위험감수성향은 불확실성의 대처능력과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지[41], 또는 성공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성향이다[25]. 기본적으로 창업은 일정부분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은 창업에 대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32]. 실증적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와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8].

직업가치는 직업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려는 가치이다. 즉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징으로 정의된다[2][36]. 직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직업가치에 따라 직업선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이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직업가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직업가치)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 위험감수성향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 직업가치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환경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교육 수준, 사회적으로 창업지원 네트워크, 창업에 대한 사회적 태도, 시장의 경제적 상황, 재무적 자금의 활용성, 창업인프라를 설명하고 있다[40][45]

Luthje and Frank[35]는 창업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일수록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창업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 요인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환경적요인(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불안정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사회경제적 위기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사회의 부정적 창업인식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고용불안정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방법

3.2.1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

개인적 요인에 관한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는 본 연구에서 직장인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박시사·강성일[3]의 문항을 바탕으로 논문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따라서 연령(은퇴예상)과 은퇴후 대책여부, 은퇴후 창업의사에 대한 것은 명목적으로, 은퇴후 경제적 소득 준비 정도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 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 계획 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요인에 관하여는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요인 중 위험 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 가치를 설명하고 이를 창업가 특성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개인의 성향으로 황보윤[16]의 4개항목을 확장하여 5개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퇴직후 자기 효능감으로 정의하고, 이지우[8]와 윤방섭[6]의 문항을 바탕으로 5문항을 채택하였다.

직업가치는 크게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구분된다. 내적 보상은 직업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여기에는 적성과 흥미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의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 외적 보상은 보수, 위세와 같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권력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사회적 인식 중시, 안정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11].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은퇴시 창업을 검토할 때에 창업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 가치에 대한 질문항목으로 김정숙[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선정하였다. 직업의 보상으로 금전 소득, 자아실현, 본인 역량을 실천에 활용, 가족을 위해 일함, 노후대책을 위해 일함, 안정적 일을 선호 6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환경적요인은 윤방섭[6]의 문항을 기초로 직장인의 은퇴후 창업의지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근의 경제적

환경 인식을 반영한 사회경제적 위기 문항으로 4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4문항, 최근 고용 환경 인식을 반영한 고용불안정성 문항 4개를 채택하였다.

창업의지는 김성순[9]과 윤남수[5]의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4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총 34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결측값이 있는 26부를 제외한 총 31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을 제시하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퇴직 및 창업 관련 개인적 요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념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는 ANOVA와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및 직급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성별에서 남성이 211명(67.2%)으로 여성 103명(32.8%)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은 40세 미만이 127명(40.4%), 40~49세가 119명(37.9%), 50세 이상이 68명(21.7%)이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3명(10.5%), 전문대학교 졸업이 57명(18.1%), 대학교 졸업이 161명(51.3%), 대학원 이상이 63명(20.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76명(24.2%), 300~500만원 미만이 81명(25.8%), 500~700만원 미만이 94명(29.9%), 700만원 이상이 63명(20.1%)이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는 16명(5.1%), 보

통은 118명(37.6%), 좋은 경우는 141명(44.9%),

매우 좋은 경우는 39명(12.4%)으로서 80% 이상이 건 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다고 응답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42명(77.0%), 계약직이 53명(16.9%), 기타가 19명(6.1%)이었고, 직종은 관리/사무직 173명(55.1%), 생산/기술직 33명(10.5%), 서비스/영업직 62명(19.7%), 연구/개발직 21명(6.7%), 기타 25명(8.0%)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에 관리/사무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급은 사원 53명(16.9%), 대리급 48명(15.3%), 과장급 41명(13.1%), 차장급 46명(14.6%), 부장급 76명(24.2%), 기타 50명(15.9%)으로서 부장급이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11	67.2	
	여성	103	32.8	
연령	40세 미만	127	40.4	
	40~49세	119	37.9	
	50세 이상	68	21.7	
	고등학교 졸업이하	33	10.5	
학력	전문대학교 졸업	57	18.1	
	대학교 졸업	161	51.3	
	대학원 이상	63	20.1	
	300만원미만	76	24.2	
월평균 가구소득	300~500만원미만	81	25.8	
	500~700만원미만	94	29.9	
	700만원이상	63	20.1	
	나쁘다	16	5.1	
건강상태	보통이다	118	37.6	
	좋다	141	44.9	
	매우 좋다	39	12.4	
	정규직	242	77.0	
고용형태	계약직	53	16.9	
	기타	19	6.1	
	직종	관리/사무직	173	55.1
		생산/기술직	33	10.5
서비스/영업직		62	19.7	
연구/개발직		21	6.7	
기타		25	8.0	
직급		사원	53	16.9
	대리급	48	15.3	
	과장급	41	13.1	
	차장급	46	14.6	
	부장급	76	24.2	
	기타	50	15.9	

4.1.2 퇴직 및 창업 관련 개인적 요인

퇴직 및 창업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퇴직 예상연령과 노후대책여부,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퇴직 후 창업여부, 생활전망, 소득확보계획 및 생활비지출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의

퇴직 예상연령은 50세 미만인 33명(10.5%), 50~55세 미만인 55명(17.5%), 55~60세 미만인 96명(30.6%), 60~65세 미만인 57명(18.2%), 65세 이상이 73명(23.2%)이었고, 이들 중 노후대책을 하지 않는 경우가 125명(39.8%), 노후대책을 하고 있는 경우가 189명(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정도는 보통이다가 164명(52.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퇴직 후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가 196명(62.4%)으로 창업할 생각이 있는 118명(37.6%)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었다.

<표 2> 퇴직 및 창업 관련 개인적 요인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퇴직 예상연령	50세미만	33	10.5
	50~55세미만	55	17.5
	55~60세미만	96	30.6
	60~65세미만	57	18.2
	65세이상	73	23.2
노후 대책여부	노후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	125	39.8
	노후대책을 하고 있다	189	60.2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38	12.1
	조금 부족하다	79	25.2
	보통이다	164	52.2
	충분하다	32	10.2
퇴직후 창업여부	매우 충분하다	1	0.3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할 것	196	62.4
퇴직 후 생활전망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118	37.6
	매우 나빠질 것이다	3	1.0
퇴직 후 소득확보계획	나빠질 것이다	72	22.9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151	48.1
	좋아질 것이다	75	23.9
	매우 좋아질 것이다	13	4.1
	전혀 안되어 있다	6	1.9
퇴직 후 생활비 지출계획	안되어 있다	85	27.2
	보통이다	138	43.9
	잘되어 있다	73	23.2
	매우 잘되어 있다	12	3.8
퇴직 후 생활비 지출계획	전혀 안되어 있다	3	1.0
	안되어 있다	95	30.3
	보통이다	162	51.6
	잘되어 있다	47	15.0
퇴직 후 생활비 지출계획	매우 잘되어 있다	7	2.1

4.2 가설검증

4.2.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 차원을 통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으로 다수의 변수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장 뚜렷해질 때까지 회전시키는 직각회전에 의한 베리맥스 방식(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인 요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을 사용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의 경우 0.5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여 요인 적재량이 0.5이하인 항목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사용하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에 의해 분석하였고,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추출된 하나의 개념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한 다음 이 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 변수인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16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 중에서 총 60.16%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거나 과감한 행동을 하며, 불확실한 상황을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위험감수성향(5항목)'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금전적 소득을 획득하거나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안정적인 일을 선호한다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직업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가치에 관한 요인으로서 '직업가치(4항목)'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능력이 있거나 소득창출에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있다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4항목)'이라 명명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은 0.5를 기준으로 하여 0.5

이하를 나타낸 3개 문항을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하였는데, 이는 직업가치 2문항(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일을 통해 나의 역량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다)과 자기효능감 1문항(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이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위험감수성향 0.838, 직업가치 0.746, 자기효능감 0.739로서 0.70이상을 나타내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심리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위험 감수 성향	나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824	.061	.153
	나는 일단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784	.143	.218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멈칫거리기 보다는 과감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749	.031	.054
	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위험이나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한다.	.749	.017	-.126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간다.	.727	-.012	.221
직업 가치	나는 더 많은 금전적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일을 한다.	.082	.862	.044
	나는 안정적인 일을 선호한다	.028	.769	-.098
	나는 노후대책을 위하여 일을 한다	-.076	.731	.016
	나는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149	.637	.045
자기 효능 감	퇴직 후에도 일(재취업, 창업 등)을 할 능력이 있으므로 퇴직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028	-.085	.806
	퇴직을 할지라도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005	-.075	.797
	나는 퇴직 후 소득 창출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232	.091	.677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 보았으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있다.	.392	.133	.629
eigenvalue		3.19	2.34	2.29
누적변량 %		24.53	42.52	60.16
Cronbach's α		.838	.746	.739

<표 4>는 환경적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총 12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 관해서는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 중에서 총 65.99%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실업률 증가로 인한 일자리수의 감소, 중년층 구인처 구인수의 감소, 중소기업 폐업 및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일자리 수 감소 등의 항목으로서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어 ‘사회경제적 위기(4항목)’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의 부재와 한국의 창업여건 문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의 항목으로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부정적 창업인식(4항목)’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자신의 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이 일을 그만두면 다른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할 자신이 없다는 항목으로서 고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 등을 나타내어 ‘고용불안정성(2항목)’이라 명명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은 0.5를 기준으로 하여 0.5 이하를 나타낸 2개 문항을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하였는데, 이는 고용불안정성과 관련된 2문항(앞으로 감원조치가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않다)이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사회경제적 위기 0.792, 부정적 창업인식 0.753, 고용불안정성 0.859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표 4〉 환경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사회경제적 위기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이다.	.834	.018	.078
	중년층 구인처 구인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827	-.004	.131
	문 닫는 중소기업이 많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730	.155	-.036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이다	.701	.269	.035
부정적 창업인식	사업가 중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058	.796	-.027
	한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안되어 있다	.150	.750	.077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	.177	.730	-.019
	자영업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010	.717	.153
고용불안정성	내 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이 일을 그만두면 다른 할 일이 없다	.086	.048	.931
	나는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할 자신이 없다	.062	.091	.924
eigenvalue		2.47	2.35	1.78
누적변량 %		24.72	48.22	65.99
Cronbach's α		.792	.753	.859

창업의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총 4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의도에 관해서는 고유치 1.0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고,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나 사업에 대한 매력성, 향후 10년 내 창업할 의향 및 다른 사람에 사업을 권유할 의도 등의 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전체 분산 중에서 총 67.31%를 설명하였고,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7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837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창업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창업의도	나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856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력적이다	.854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805
	나는 향후 10년 이내에 창업을 할 것이다	.763
eigenvalue		2.69
누적변량 %		67.31
Cronbach's α		.837

4.2.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단수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변화가 나타나면 두 변수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종속변수의 분산이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이 지나치게 작아서 0에 가까우면 회귀선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회귀식이 유의하다는 가설이 기각되면 다른 모형을 개발하여야 하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파악한다. VIF 값의 경우 5이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이상이라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음,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각각 투입하여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일부 요인(성별,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개인적 요인의 노후대책여부, 퇴직 후 창업여부를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4-6>은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 통계값이 1.052로서 .005 수준에서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VIF값이 1.071~3.502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결정계수 R²는 .054로서 창업의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이 5.4%로 낮게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의도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016	-0.225	.823
연령	.008	0.113	.910
학력	-.054	-0.821	.412
월평균 가구소득	.026	0.380	.704
건강상태	.082	1.411	.159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010	0.145	.885
- 고용형태2(기타=1)	.000	0.005	.996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037	0.595	.553
- 직종2(서비스/영업직=1)	.049	0.735	.463
- 직종3(연구/개발직=1)	-.041	-0.684	.495
- 직종4(기타=1)	.024	0.336	.737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077	-1.055	.292
- 직급2(과장급=1)	-.029	-0.392	.696
- 직급3(차장급=1)	-.059	-0.743	.458
- 직급4(부장급=1)	.089	0.846	.398
- 직급5(기타=1)	.094	1.050	.295
F	1.052		
R ²	.054		
Adj R ²	.003		

개인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함께 개인적 요인(퇴직예상연령, 노후대책여부,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퇴직 후 창업여부, 퇴직 후 생활전망, 소득확보계획 및 생활비 지출계획)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서처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709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²가 .227로서 창업의도에 대한 개인적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2.7%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111~3.711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 개인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의도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000	-0.013	.990
연령	.025	0.362	.718
학력	-.101	-1.610	.108
월평균 가구소득	.031	0.489	.625
건강상태	.016	0.274	.785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011	0.171	.865
- 고용형태2(기타=1)	.001	0.016	.987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042	0.733	.464
- 직종2(서비스/영업직=1)	.029	0.465	.642
- 직종3(연구/개발직=1)	-.030	-0.544	.587
- 직종4(기타=1)	.006	0.096	.924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073	-1.074	.284
- 직급2(과장급=1)	-.024	-0.346	.730
- 직급3(차장급=1)	-.026	-0.350	.727
- 직급4(부장급=1)	.141	1.429	.154
- 직급5(기타=1)	.060	0.719	.473
개인적 요인			
퇴직예상연령	.026	0.411	.682
노후대책여부(없다=0, 있다=1)	-.023	-0.351	.726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027	0.430	.667
퇴직후창업여부(없다=0, 있다=1)	.290	5.339***	.000
퇴직후 생활전망	.252	2.748**	.006
퇴직후 소득확보계획	0.23	0.228	.820
퇴직후 생활비지출계획	.025	0.336	.737
F	3.709***		
R ²	.227		
Adj R ²	.166		

** $p<.01$, *** $p<.001$

구체적으로, 개인적 요인에서는 퇴직 후 창업여부와

생활전망이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후 창업여부는 $t=5.339, p<.001$ 에서, 퇴직 후 생활전망은 $t=2.748, p<.01$ 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퇴직 후 생활전망($\beta=.252$)보다는 퇴직 후 창업여부($\beta=.290$)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퇴직 후에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퇴직 후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만이 아니라 창업을 할 의향도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함께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585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188로 창업의도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8.8%였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VIF값이 1.114~3.512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요인인 위험감수성향과 직업가치, 자기효능감 중에서는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을 제외하고 위험감수성향만이 $\beta=.380, t=6.659, p<.001$ 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위험이 따를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거나 적극적으로 과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창업의도의 경우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이 유효한 변수라고 할 것이다.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함께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불안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심리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P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성별(남성=0, 여성=1)	-.062	-0.942	.347
	연령	.019	0.276	.783
	학력	-.059	-0.960	.338
	월평균 가구소득	.020	0.309	.758
	건강상태	.034	0.603	.547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086	1.372	.171
	- 고용형태2(기타=1)	.037	0.583	.560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023	0.399	.691
	- 직종2(서비스/영업직=1)	.030	0.477	.634
	- 직종3(연구/개발직=1)	-.064	-1.163	.246
	- 직종4(기타=1)	.046	0.701	.484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092	-1.335	.183
	- 직급2(과장급=1)	-.047	-0.652	.515
	- 직급3(차장급=1)	-.124	-1.648	.100
- 직급4(부장급=1)	.071	0.718	.473	
- 직급5(기타=1)	.027	0.326	.745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성향	.380	6.659 ***	.000
	직업가치	-.045	-0.805	.421
	자기효능감	.105	1.864	.063
F		3.585***		
R2		.188		
Adj R2		.136		

그 결과 <표 9>와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354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178로 창업의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7.8%였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VIF값이 1.058~3.541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제외하고 부정적 창업인식이 $t=-4.682, p<.001$ 에서, 고용불안정성이 $t=-4.712, p<.001$ 에서 창업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부정적 창업인식($\beta=-.255$)에 비해 고용불안정성($\beta=-.279$)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자기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현 직장에서 퇴직하여 재취업할 자신이 없을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할 수 있다.

〈표 9〉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독립변인		종속			
		창업의도			
		β	t	P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성별(남성=0, 여성=1)	-.032	-0.478	.633	
	연령	.098	1.378	.169	
	학력	-.034	-0.553	.581	
	월평균 가구소득	-.017	-0.257	.798	
	건강상태	.019	0.329	.743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 고용형태2(기타=1)	.021 .015	0.346 0.232	.730 .817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 직종2(서비스/영업직=1) - 직종3(연구/개발직=1) - 직종4(기타=1)	.014 .035 -.046 .009	0.240 0.545 -0.819 0.133	.811 .586 .413 .894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 직급2(과장급=1) - 직급3(차장급=1) - 직급4(부장급=1) - 직급5(기타=1)	-.070 -.036 -.048 .079 .056	-1.003 -0.509 -0.637 0.793 0.668	.316 .611 .525 .428 .505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015	-0.258	.796
	부정적 창업인식	-.255	-4.682***	.000	
	고용불안정성	-.279	-4.713***	.000	
	F		3.354***		
	R2		.178		
	Adj R2		.125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적 요인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다. t-test와 ANOVA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분석기법인데, 이 두 분석방법은 모집단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모집단이 2개 이하일 때는 t-test를 통해 차이를 분석하며, T검증에 의한 유의도 값이 0.05보다 작으면 모집단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OVA는 두 개 이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계분석방법이고 검증통계량은 F값인데, 각 집단의 크기가 다른 경우 사후 다중비교를 위하여 Scheff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모집단의 수가 2개인 성별의 경우 t-test를 실시하였고, 연령과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및 직급은 ANOVA를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 고용형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표 10>에서와 같이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분석되었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은 $t=4.067, p<.001$ 에서, 직업가치는 $t=2.600, p<.05$ 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요인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과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t=2.382, p<.05$ 에서, 부정적 창업인식은 $t=2.777, p<.01$ 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한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창업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10〉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남성 (n=211)		여성(n=103)		t	P
		M	SD	M	SD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성향	3.40	.69	3.12	.52	4.067***	.000
	직업가치	3.86	.58	3.69	.55	2.600*	.010
	자기효능감	3.57	.69	3.51	.59	0.784	.434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3.65	.56	3.47	.69	2.382*	.018
	부정적 창업인식	2.98	.66	2.76	.65	2.777**	.006
	고용불안정성	2.78	.82	2.83	.79	-0.469	.639
창업의도		3.05	.79	3.00	.80	0.484	.629

* $p<.05$, ** $p<.01$, *** $p<.001$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위기는 $F=10.056, p<.001$ 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40세 미만 에 비해 4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아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일자리가 더 감소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고용불안정성은 $F=8.866, p<.001$ 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50세 미만보다는 5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위기를 더 많이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40세미만 (n=127)		40-49세 (n=119)		50세이상 (n=68)		F	P
	M	SD	M	SD	M	SD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성향	3.24	.62	3.34	.66	3.38	.71	1.197	.303
직업가치	3.79	.60	3.82	.56	3.82	.56	0.086	.917
자기효능감	3.62	.68	3.54	.60	3.42	.72	2.073	.128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3.41	.60	3.68	.54	3.77	.68	10.056 ***	.000
부정적 창업인식	2.86	.75	2.97	.63	2.89	.56	0.808	.447
고용불안정성	2.62	.75	2.81	.82	3.12	.81	8.866* **	.000
창업의도	2.97	.80	3.04	.84	3.16	.69	1.247	.289

p<.0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으며, 심리적 요인에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위험감수성향은 F=5.440, p<.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가치는 F=5.620, p<.01에서 소득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500~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즉, 다른 소득층에 비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더 선호하고, 금전적 소득 획득이나 노후 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F=2.646, p<.05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이들 세 요인은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이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위험감수성향이나 직업가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300만미 만(n=76)		300-500 만(n=81)		500-700 만(n=94)		700만이 상(n=63)		F	P
	M	SD	M	SD	M	SD	M	SD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 성향	3.25	.67	3.21	.61	3.24	.58	3.60	.73	5.440* *	.001
직업가치	3.64	.60	3.86	.57	3.75	.56	4.02	.52	5.620* *	.001
자기 효능감	3.59	.70	3.47	.71	3.47	.59	3.73	.64	2.646* *	.049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 적 위기	3.51	.72	3.60	.57	3.57	.61	3.71	.53	1.330	.265
부정적 창업인식	2.90	.71	2.89	.67	2.89	.56	2.94	.75	0.129	.943
고용불안 정성	2.79	.81	2.89	.70	2.77	.89	2.74	.83	0.476	.700
창업의도	2.93	.76	3.07	.80	3.09	.77	3.04	.86	0.637	.591

*p<.05, **p<.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표 13>은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 환경적 요인의 고용불안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6.665, p<.001에서 건강상태별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좋은 집단에서 직업가치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F=9.188, p<.001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 비해 매우 좋은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고용불안정성은 F=12.400, p<.001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에 비해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더 높지만, 고용불안정성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3〉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나쁘다 (n=16)		보통 이다 (n=118)		좋다 (n=141)		매우 좋다 (n=39)		F	P
	M	SD	M	SD	M	SD	M	SD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 성향	3.23	.73	3.23	.67	3.34	.57	3.50	.82	1.981	.117
직업가치	3.89	.87	3.67	.54	3.83	.54	4.12	.54	6.665*	.000
자기효능 감	3.30	.84	3.43	.60	3.54	.61	4.02	.75	9.188*	.000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 적 위기	3.61	.58	3.58	.58	3.63	.61	3.48	.74	0.598	.616
부정적 창업인식	2.67	.67	2.95	.55	2.89	.69	2.90	.87	0.869	.457
고용불안 정성	2.97	.69	3.02	.74	2.77	.80	2.17	.76	12.400	.000
창업의도	2.91	.94	3.01	.60	3.02	.83	3.23	1.06	0.996	.395

p<.0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직급에 따라서는 <표 14>와 같이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고 창업의도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은 F=3.184, p<.01에서 직급별 차이가 있었고, 사원과 대리급에 비하여 차장급에서 위험감수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3.845, p<.01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사원과 차장급보다는 과장급의 평균값이 더 높아 과장급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을 선호함과 동시에 금전적 소득 획득,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F=3.872 p<.01에서 직급별 차이를 나타냈고, 사원에 비해 부장급의 평균값이 더 높아 부장급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 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창업의도는 F=2.482 p<.05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대리급과 차장급보다는 부장급과 기타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장급 등이 대리급과 차장급보다 사업가로 성공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고,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14〉 직급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사원 (n=53)		대리 급 (n=48)		과장 급 (n=41)		차장 급 (n=46)		부장 급 (n=76)		기타 (n=50)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 성향	3.06	.62	3.16	.55	3.36	.56	3.48	.56	3.38	.70	3.41	.78	3.184**	.008
직업가치	3.63	.69	3.80	.58	4.10	.45	3.70	.48	3.88	.56	3.76	.56	3.845**	.002
자기효능감	3.66	.64	3.49	.52	3.37	.70	3.51	.60	3.52	.67	3.72	.78	1.750	.123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 적 위기	3.33	.62	3.67	.74	3.54	.65	3.52	.54	3.79	.51	3.60	.56	3.872**	.002
부정적 창업인식	2.83	.83	2.86	.67	2.93	.63	3.06	.58	2.93	.56	2.84	.71	0.829	.530
고용불안 정성	2.67	.88	2.85	.66	2.80	.77	2.85	.79	2.92	.89	2.65	.79	1.032	.399
창업의도	3.02	.86	2.84	.78	2.93	.86	2.86	.78	3.20	.66	3.24	.82	2.482*	.032

*p<.05, **p<.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5. 결론

5.1 연구결과의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human capital)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개인적 요인으로 퇴직후 창업여부와 퇴직후 생활전망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설2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심리적 요인중 위험감수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환경적 요인중 사회의 부정적 창업 인식과 최근 고용불안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개인적 요인의 퇴직후 창업여부는 t=5.721, p<.001에서 퇴직후 생활전망은 t=2.131, p<.05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퇴직후 생활전망

($\beta=.163$)보다는 퇴직 후 창업여부($\beta=.283$)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퇴직 후에 창업을 사전에 고려하고 있거나, 퇴직후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만이 아니라 창업을 할 의향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인 위험감수성향은 $t=6.164$ ($\beta=.320$), $p<.001$ 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이 따를 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거나 적극적으로 과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부정적 창업인식이 $t=-5.165$, $p<.001$, 고용불안정성이 $t=-4.370$, $p<.001$ 에서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고용불안정성($\beta=-.261$)에 비해 부정적 창업인식($\beta=-.279$)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현 직장에서 퇴직하여 재취업할 자신이 없을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적 요인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고용형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분석되었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은 $t=4.067$, $p<.001$ 에서, 직업가치는 $t=2.600$, $p<.05$ 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요인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과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t=2.382$, $p<.05$ 에서, 부정적 창업인식은 $t=2.777$, $p<.01$ 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한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창업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위기는 $F=10.056$, $p<.001$ 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아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일자리가 더 감소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고용불안정성은 $F=8.866$, $p<.001$ 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50세 미만보다는 5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위기를 더 많이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심리적 요인에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위험감수성향은 $F=5.440$, $p<.01$ 에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가치는 $F=5.620$, $p<.01$ 에서 소득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500~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즉, 다른 소득층에 비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더 선호하고, 금전적 소득 획득이나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F=2.646$, $p<.05$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이들 세 요인은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위험감수성향이나 직업가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 환경적 요인의 고용불안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6.665$, $p<.001$ 에서 건강상태별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좋은 집단에서 직업가치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F=9.188$, $p<.001$ 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 비해 매우 좋은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고용불안정성은

F=12.400, $p<.001$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에 비해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이 더 높지만, 고용불안정성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급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고 창업의도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은 $F=3.184$, $p<.01$ 에서 직급별 차이가 있었고, 사원과 대리급에 비하여 차장급에서 위험감수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3.845$, $p<.01$ 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사원과 차장급보다는 과장급의 평균값이 더 높아 과장급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을 선호함과 동시에 금전적 소득 획득,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F=3.872$ $p<.01$ 에서 직급별 차이를 나타냈고, 사원에 비해 부장급의 평균값이 더 높아 부장급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창업의도는 $F=2.482$ $p<.05$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대리급과 차장급보다는 부장급과 기타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장급 등이 대리급과 차장급보다 사업가로 성공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고,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5.1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인 은퇴후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은퇴자 또는 시니어 관련 연구는 주로 경제·사회복지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창업관련 연구는 간과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변수의 선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적 요소이지만 은퇴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은퇴예상연령, 은퇴후 대책 여부, 은퇴후 경제적 준비 정도, 은퇴후 창업의사 결정 여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계획 등의 변수 선정과 심리적 요인으로 직업가치선정은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한계를 가진다. 개인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중에 창업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요인의 수가 적은 것은 표본수의 한계이거나 문항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개인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의 문항을 재구성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진수·최명길·성창수 (2011), 시니어 창업가의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4),1833-1843.
- [2]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Vol. 17(1), 79-102.
- [3]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제31권, 제2호, 187-204.
- [4] 성창수·김진수 (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33, 112-133
- [5] 윤남수 (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Vol. 25(2), 1537-1557.
- [6] 윤방섭 (2004), 창업의지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89-110.
- [7] 이승재·황보윤 (2010), 단기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Vol. 5, 19-44.
- [8] 이지우 (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Vol. 22(1), 121-146.
- [9] 김성순 (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김병숙·강일규·진미석·장원섭·김해동·권진희·정윤경·정현식이양구·(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2]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2009), "잠재적 창업가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환경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14권 (특별호) 「2009년 경영학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4] 하규수, 서상혁(2011), “사업위험에 대한 인지가 창업의욕 및 사업유지의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285-1311
- [15] 하규수, 한정하(2010), “기업가의 사업실패 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2(1), 21-41
- [16] 황보운 (2011), 소상공인 외식서비스업체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Vol. 6., 51-73.
- [17] 황보운 (2010), 시니어 창업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1-4.
- [18]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 [19] Baron, R. (2008),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3., 328-340.
- [20] Baucus, D. and S. E. Human (1994), Second Career Entrepreneurs : A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es and Antecedent Variabl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9. 41-71.
- [21] Baum, J. R. and E. A. Locke(2004),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Traits, Skill and Motivation to New Venture Grow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587-598.
- [22] Blackburn, R., M. Hart, and M. O'Reilly (2000), *Entrepreneurship in the Third Age : New Dawn or Misplaced Expectations?*, 23rd ISBA National Small Firms Policy and Research Conference, Aberdeen University, 1-17.
- [23] Blanchflower, D. G., A. J. Oswald and A. Stutzer (2001), Latent Entrepreneurship across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680-691.
- [24] Cuervo, A.(2005),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1, 293-311
- [25] Dess, G. G. and G. T. Lumpkin (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9., 147-156.
- [26] Evans, D. & Jovanovic, B. (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808-827.
- [27] Fishbein, M. and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Addison-Wesley.
- [28] Gartner, W. B. (1989),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22.
- [29] Greenberger, D. B. and D. L. Sexton(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26. 107-118
- [30] Karz, J. A. and Gartner, W.B., (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29-441.
- [31] Krueger, N. F.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32] Krueger, N. F., Reilly, M. D.,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5), 411-432.
- [33] Leana, C. R. & Feldman, D. C. (1992). *Coping with job loss: how individuals, organization and communities respond to layoffs*, N.Y.: Lexington Books.
- [34] Lerner, M., & Haber, S. (2000), Performance factors of small tourism ventures: the interface of tourism entrepreneurship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busieness venturing*, 16, 77-100.
- [35] Luthje, C. and N. Franke(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Vol. 33, 135-148.
- [36] Marini, M. M., Fan, P., Finley, E., and Beutel, A. M. (1996), Gender and job value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1), 49-65.
- [37] Martin, M. J. C.(1984), *Man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Reston, VA : Reston Publishing.
- [38] Markman, G. D. and R. Baron (2003), *Person-Entrepreneurship Fit : Why Some Persons are More*

- Successful as Entrepreneurs than Others, Human Resources Management Review, Vol.13, 281-302.
- [39] Mydans, S. (2001), Singapore, hoping for a baby boom, makes sex a civic duty, N.Y. Times(April 21).
- [40] Naffziger, D. W., J. S. Hornsby and D. F. Kuratko(1994), "A Proposal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9-42.
- [41] Oosterbeek, H., M. van Praag, and A. Ijsselstein (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4, 442-454.
- [42] Pillis, E. d. and K. K. Reardon (2007),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Persuasive Messag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A Cross-Cultural Comparison,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Vol.12, 382-396.
- [43] Seymour, N. (2002), Business Plan Competitions : An Overview, CELEE Digest, Number 02-01, May, at www.celee.com,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Clearinghous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298-321.
- [44] Sitkin, S. B. and L. R. Weingart(1995), Determinants of Risky Decision Making Behavior :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s and Propen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1573-1592.
- [45] Smeltzer, L. R. and G. L. Fann(1989), "Gender Differences in External Networks and Small Business Owner/Manag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27, 25-32.
- [46] Timmons, J. A. (2000),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2000(5th ed). Homewood, IL : Irwin.
- [47] Weber, P. and M. Schaper (2004), Understanding the Grey Entrepreneur,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Vol. 12, 147-164.
- [48] Zhang,T. (2008), Elderly Entrepreneurship in an Aging Us Economy It's Never Too Late, Serie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2,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최 양 립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2004년 5월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경영, 창업, 금융
· E-Mail : ylchoi@kbsec.co.kr

하 규 수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현재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 관심분야 : 벤처, 창업, 경영전략
· E-Mail : ksh@hoseo.edu